

디지털 복합기 '디지털 워크스' 100만대 생산 돌파

(주)신도리코 아산공장에서 자축 행사 가져

●●● 취재 | 박지연 기자 |

신도리코가 독자기술로 개발·생산하고 있는 디지털 복합기 '디지털 워크스(DGwox)'가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

신도리코(대표·우석형, www.sindo.co.kr)는 디지털 복합기 '디지털 워크스'가 100만대 생산을 달성해 지난 7월 13일 신도리코 아산공장에서 기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디지털 워크스(DGwox)는 복사기·팩시밀리·프린터·스캐너 기능을 통합한 신도리코 대표 제품으로 지난 2000년 일본 리코를 통해 첫 출하를 시작한 이후 북미와 유럽 등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판매됐다. 이어 2003년 국내 시장에 선보여 출시 두 달만에 시장 점유율 50%를 넘기면서 국내 판매 1위에 올라섰다. 지금도 중급 모델 중에서는 기능·가격 모든 면에서 경쟁 제품이 없을 정도로 시장의 절대 우위를 지키고 있다. 디지털 워크스는 아산공장에서 첫 생산한 이후 'C1'에서 'C5'로 제품이 개선됐고 오는 2014년까지 생산 계획이 잡혀 있을 정도로 단일 제품 '최장수 복합기'로 자리를 잡았다.

이날 아산공장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우석형 회장은 "디지털 워크스 100만대 생산은 신도리코의 기술력과 생산력이 세계적인 수준임을 증명하는 위업"이라며 "디지털 워크스의 성공은 신도리코가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00만대 생산 노하우와 지난해 11월 글로벌 브랜드 '신도(SINDOH)'를 발표한 신도리코는 해외사업부에서 더 큰 활약을 보이고 있다.

우 회장은 "계속해서 복합기, 레이저 프린터, 상업용 디지털 인쇄기 등의 다양한 출력기기에 대한 기술경쟁력을 높

이고 비용절감, 생산성 향상, 정보 보안을 구현하는 기업형 솔루션 개발, 구축 등의 미래 사업을 통해 'better output SOLUTION Partner'의 기업비전을 실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복사기를 선보인 신도리코는 50년 가까이 사무기기 한 우물만 고집했으며 연간 매출의 70% 이상, 5000억원 규모의 제품과 기술을 수출하고 있다. 2003년부터는 중국 칭다오에 생산 공장을 가동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높였다. 충남 아산과 중국 칭다오 공장의 연간 생산 능력이 디지털 복합기 70만대, 고속 레이저 프린터 200만대, 현상제 2500톤, 감광지 15000톤, 드럼 300만본, 카트리지 500만개에 달할 정도로 세계적인 규모의 생산 시설을 갖췄다.



▶수출 100만대 생산이라는 위업을 달성하며 디지털복합기의 대명사로 자리잡은 '디지털 워크스'